

사회영향채권(Social Impact Bond)와 희년경제의 해법

김 대영¹

<논문초록>

본 논문은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의 핵심적인 개념이 서비스경제의 트라일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이며 또한 그것은 구약성서의 희년 토지기반 경제(이하 토지 경제)와 유사성과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또한 희년토지제도 개념을 주식회사와 자본시장에 적용한 SHC(Servant Holding Company 이하 SHC)와 SIB도 유사성과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SIB와 SHC가 개념적으로 서로 보완되는 모델임을 보이고 SIB와 SHC를 함께 적용하여 희년 경제 개념이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희년 경제를 현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노동시장 관점에서 분석하고 희년 경제가 지속 가능한 투자기반 경제였음을 논하고 그 예를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신생아들의 소비를 자본화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예시를 보였다.

주제어: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임팩트 투자, 민관협력, 희년, 희년 토지제도, 희년 부채제도, 희년 노예 제도, SHC(Servant Holding Company), 융합경제, 합계출산율 경제민주화 자본시장 민주화, 지속가능

I. 서언

사회적 경제 영역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재무적 이익을 모두 추구한다. 이러한 임팩트 투자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SIB, Social Impact bond)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SIB는 임팩트 투자와 민관협력 모델을 융합하여 임팩트 투자나 기존의 민관협력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포지티브 섬 구조를 만든다. SIB는 임팩트투자자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영역이나 중요한 사회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고 그 투자의 결과로 성과(Outcome)를 내면, 성과지불자로 참여하는 정부와 자선재단 등은 성과목표가 달성될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이중 구조를 가짐으로서 증세없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복지와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SIB는 혁신적인 자금조달 방식이면서 동시에 성공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성과기반 계약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SIB 구조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소유권이 분리된 상태에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로섬 구조를 미래가치를 투자를 통해서 만들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극복하는 포지티브섬 구조라는 점이다. 성서의 희년 토지제도도 포지티브 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SIB 구조와 희년 토제도가 다른 개념은 SIB를 부채를 기반으로 한 포지티브 섬 구조를 이루었다면 희년 토지제도는 부채를 금하고 토지가치를 기반으로 한 포지티브 섬 구조를 이루었다.

희년 토지 제도와 희년 토지 기반의 경제에 대한 거시경제학적인 분석과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장점을 오늘날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에 적용한 SHC(Servant Holding Company)와 SHC기반

¹ 김대영(융합경제연구소 SHC Lab 대표)

융합경제는 SIB와 미래가치를 현재화하는 포지티브 섬 구조라는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희년 토지제도개념처럼 SHC는 지분(Equity)기반으로 포지티브 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채기반으로 포지티브섬 구조를 이루는 SIB와는 소유권적이며 경제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SIB와 SHC를 함께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와 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 대신에 소비를 자본화하는 방법으로 신생아의 소비를 자본화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신생아 수당을 20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자 모델을 설명하고 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를 통해 사람과 기업 등 모든 경제 참여자들이 미래가치를 현재화한 자본을 소유할 수 있음을 보이고, 성서의 희년 토지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서의 희년 경제 개념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II.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의 포지티브섬과 한계점

1.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임팩트투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재무적 이익을 모두 추구한다. 그리고 SIB는 민관협력과 임팩트투자자가 융합된 모델로 임팩트투자자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영역이나 중요한 사회문제를 특히 예방적인 분야에, 사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선 투자하고 그 선 투자의 결과가 성과(Outcome)를 내면, 성과지불자로 참여하는 정부와 자선재단 등은 약정된 기준에 따라 임팩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와 함께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자산기반 투자였다. 그래서 민간이 실제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기 보다는 안전한 자산에 미리 투자하는 개념이 더 많았다. 그런데 SIB에서 임팩트 투자는 미리 안전한 투자를 고르거나 수행 중에 성과나는 서비스와 서비스 대상만을 골라서 서비스하는 크리임과 파킹등을 피하고 공정한 평가를 한다면,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예방적 분야에 미리 투자하여 복지나 사회서비스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게 된다. 그렇게 때 <Figure 1>와 같이 임팩트투자자에게 비용과 투자자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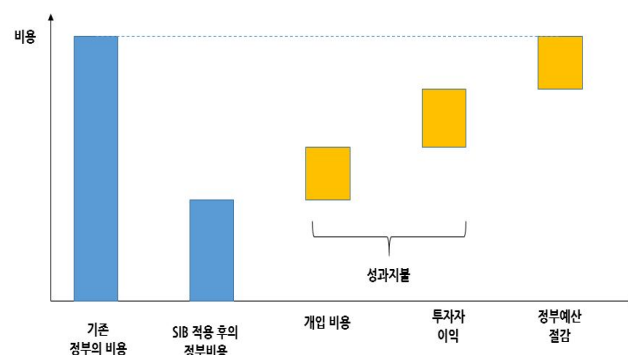


Figure 1 SIB 재정모델²

² 출처: UK Cabinet: centre of social impact 자료 수정

2. SIB 민관협력의 포지티브 섬 구조

현재 정부재정이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사회서비스가 산출(Output)기반으로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과지반으로 <Figure 2>와 같이 실제적인 성과(Outcome)기반의 복지, 나아가서는 사회에 임팩트(영향)를 주는 정부지출로 변화시켜 나가 증세 없는 복지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선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미래가치를 투자하여 그것을 기여한대로 나누는 포지티브 섬 구조에 의해 가능하며 그 구조 안에서 SIB와 같은 계약기반 채권구조로 정부의 선불, 후불 그리고 성과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SIG(Social Guarantee)³, PFP(Pay for Performance)⁴, PFS(Pay for Success)⁵등이 위치되고 있다.

³ 사회성과기반 계약의 또다른 형태는 사회성과보증(이하 SIG)계약이다. SIB는 민간 투자자가 예방적 사회서비스의 자금을 제공하고 성과가 만들어 질 경우에 돈을 되돌려 받도록 되어 있는데 SIG는 정부가 앞단에 돈을 지급하고 서비스공급자가 약속한 성과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 되돌려 받는다. 실패시 환불해주는(Pay For Failure)계약이다. 위험한 젊은이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고용을 높이는 마사쉴레쓰주의 SIB 사업에 카운슬링과 직업훈련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Roca의 대표는 “SIG는 지금의 구조보다 자금의 안정성 또는 다른면에서 더많은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공지불 계약에 Roca가 뛰어난 이유는 몇 년 동안 900명의 젊은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이 보장 되었기 때문이다.”
www.governing.com/templates/gov_print_article?id=373262461 참조

⁴ PFS(Pay for Success)는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실행했던 프로그램이다. PFP는 실제 주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한다. SIB와 PSF는 리스크를 투자자가 지지만 PFP는 리스크를 서비스 시행자가 진다. 서비스 시행자가 스스로 선투자를 하고 성공하면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 시행자가 아무도 먼저 선투자를 하고자 하지 않아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SIB가 보편화된 실행예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⁵ PFS(Pay for Success)는 민간의 임팩트 투자의 단계보다 성공하면 지불하는 단계의 개념을 강조한 미국에서 SIB의 개념을 확대하여 SIB 대신 사용한다. PFS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의 임팩트 투자가 있다. 그러나 결과가 검증된 경우와 같이 임팩트 투자없이 직접 서비스 사용자가 시행하고 성공하면 정부가 지불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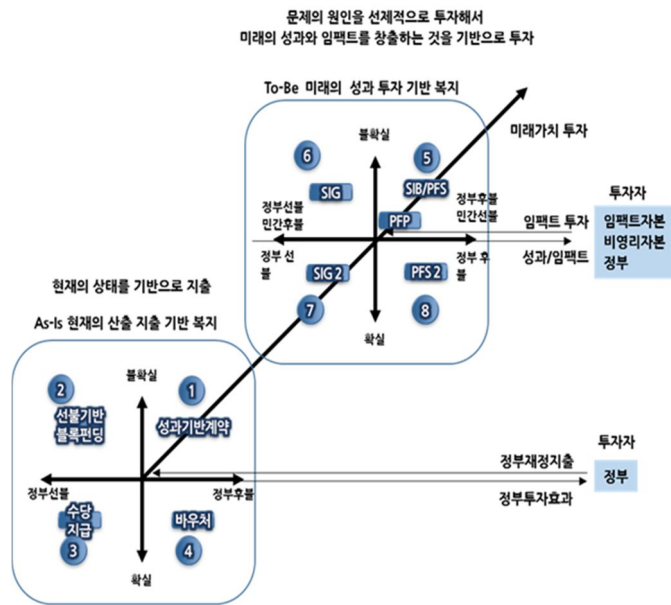


Figure 2 SIB의 포지티브 섬 구조

3. SIB의 한계

SIB는 계약기반 채권구조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계약기반 채권 구조로 예방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측정해서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서비스 구조와 지분구조를 함께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이부분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SIB가 선진국에서 선제적 예방 분야에 투자하고 그것으로 복지비용을 줄이는 접근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예방적인 영역보다 기본적인 복지 영역이 더 중요하다. 기본적인 복지 영역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대상만 선정을 하는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크리밍(Creaming)이나 체리피킹(Cherry Picking),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파킹(Parking)과 같이 실제의 성과가 아닌 성과를 내기 쉽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과기반의 모든 프로그램의 한계이기도 하다. 넷째 SIB가 복잡한 조직으로 규모가 작은 곳에 적용할 때에는 실질적인 정부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구조가 된다. 다섯째, 전통적 기부활동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 여섯째 사회적 필요와 투자의 괴리가 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떤 SIB에 투자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는데, 재무적 수익률이 더 큰 프로젝트, 트랙레코드가 많은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선호할 개연성이 높다. 일곱째, 개별 SIB 프로젝트가 다른 SIB 프로젝트와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와 임팩트 자체를 국가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성과와 임팩트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정부재정으로 지불을 했을 때 정부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III. 포지티브 섬 희년 경제 구조

1. 제로섬, 불평등 포지티브 섬, 평등 포지티브 섬 구조

제로섬은 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득의 총합이 항상 제로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적으로 다른 소유 조직에 속한 존재들이 서로 거래를 할 때 서로 이익을 더 많이 받으려는 욕구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충돌 중에 한쪽은 이익을 보게 되면 다른 쪽은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를 제로섬 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한쪽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불평등 포지티브 섬 구조가 있고 모두 평등하게 포지티브 섬이 되는 구조가 있다

첫째 제로섬 구조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영역에서 물질이 이동되는 것과 같은 거래가 있다. 물질은 이동(Move)되는 특징을 가진다. 수여자가 소유한 물질 중 1을 수혜자에게 준다면, 수여자의 총 물질 중 1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수혜자가 1을 받게 된다. 이 영역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 시간, 돈, 물건들이 상대방에게 이동(move)한다. 주는 것 자체는 제로섬 구조이다. 그러므로 그 대가로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 해야한다. 대가를 받기 전까지는 부채관계가 형성된다. 현재의 경제와 복지 영역이 이것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포지티브 섬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약이나 공유서비스, 지분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불평등 포지티브 섬 구조이다. 이것은 지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 내가 가진 지식을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도 나와 동일한 지식을 가진다(복사). 포지티브 섬이 일어나지만 다른 보상이 없다면 한쪽에만 혜택을 받게 되는 불공평한 포지티브섬이 일어나게 된다. 이 영역은 지식기반 경제가 되면서 경제영역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이다.

셋째 평등 포지티브 섬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감정(에너지)을 공감할 때 발생하는 것과 같다. 공감의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되고 발생되어(창발 되어) 내가 먼저 느끼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나의 좋은 감정(에너지)을 상대방에게 주면 내가 준만큼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뻐진다. 이렇게 될 때 첫번째와 두번째와 달리 유일하게 포지티브 섬이 공평하게 일어나는 영역이다. 이러한 구조가 경제구조에서 일어나는 예는 당기의 이익을 넘어서 미래가치를 현재화하면서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이익을 나누어지면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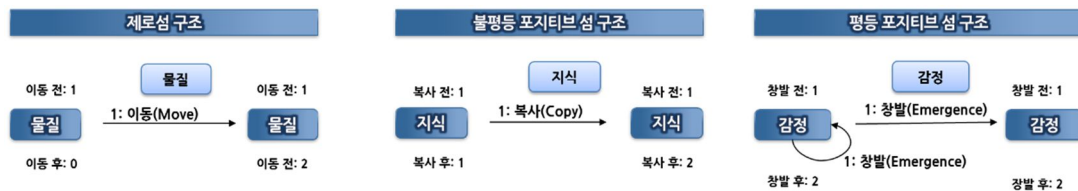


Figure 3 제로섬, 불평등 포지티브 섬, 평등 포지티브섬

2. 경제의 포지티브 섬 구조

<Figure 4>는 공유의 정도에 따라 3단계 그리고 거래를 기간적으로 3단계로 구분 분류하여 전체 9가지 영역으로 거래관계의 이익을 분류한 것이다. 장기적인 관계가 될수록 그리고 아무런 공유가 없는 것보다는 서비스 공유가 될수록 그리고 서비스 공유보다는 자본공유가 될수록 포지티브 섬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간다. 그리고 단기적이 될수록 공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록 단기 거래나 부채의 관계로서 제로섬 구조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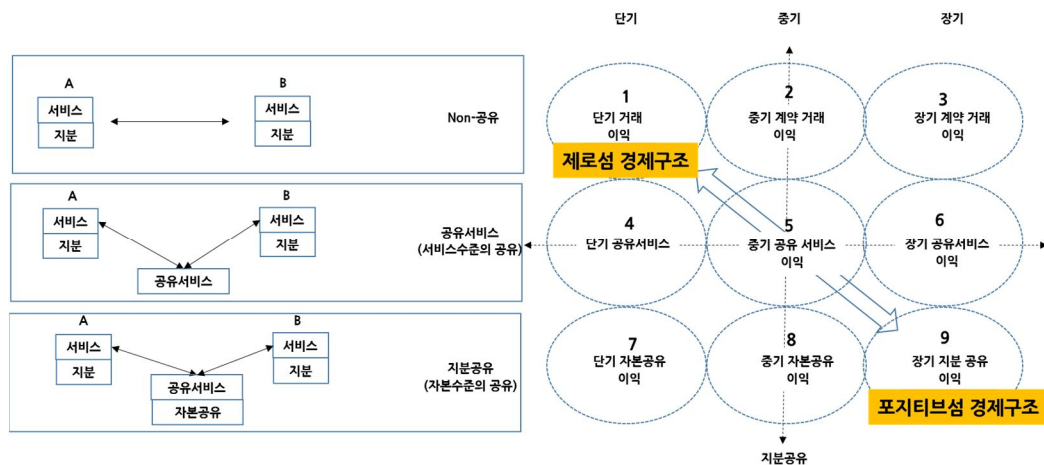


Figure 4 거래의 기간과 공유의 정도에 따른 포지티브섬 구조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거래는 <Figure 4>의 1번 단기 거래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가 많다. 사적소유권이 배타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제로 섬 구조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수의 뛰어난 기업이 생기고 다수는 통테일이 되는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생존하는 소수가 되기 위해 상대방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은 그 만큼 더 이익을 보려는 제로섬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러한 제로섬 구조를 극복하고 모두가 이기는 포지티브 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인 당기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서로 이익을 다투는 구조를 벗어나 중장기적인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런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서 시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첫번째 1,2,3의 거래를 나타내고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을 4,5,6, 나아가서는 자본을 공유하는 구조를 7,8,9번으로 구분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포지티브 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가치를 현재화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장기가 될수록 그리고 서비스를 공유하고 지분을 공유할수록 안전하고 좋은 투자, 나아가서는 내부구성권 간의 좋은 포지티브섬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미래가치를 현재로 가져오는 투자와 공동지분 등의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표하는 이익을 내고 당기에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분배를 한다면 모두가 이기는 포지티브 섬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심리는 당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그것이 미리 그 비율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이익을 나눌 때 서로 다투게 되거나 이익을 얻고도 서로 상대방이 내 이익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손해를 보았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지분을 미리 약속하고 나누어 가지는 사이가 되면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지분대로 그 당기 순이익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 포지티브 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비율을 미리 정하게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쪽에서 많은 지분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분을 미리 정하면 불합리성이 증가해 지속 가능하게 포지티브 섬 구조를 가지기 위한 공동지분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하게 포지티브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여한대로 성과와 실적에 따라 공유지분의 개별 지분이

변경되면서 거래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3. 희년 경제의 포지티브 섬구조와 자본주의 자본시장에 적용

1). 희년경제의 경제학적 분석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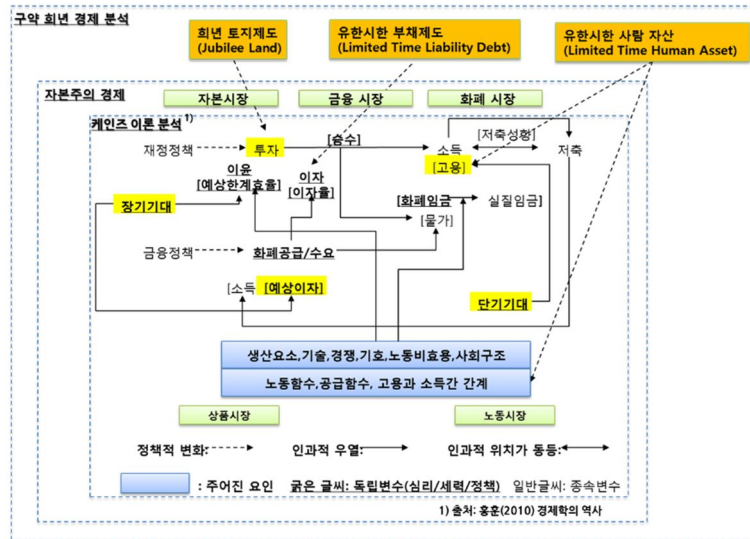


Figure 5 희년경제의 케인즈이론기반 분석틀

희년 토지경제의 희년토지제도는 자본시장과 투자, 이윤에 해당되고, 희년 경제의 유한시한 부채제도는 금융시장과 이자에 해당되고, 유한시한 사람자산은 고용과 노동시장에 해당된다. 그래서 기존의 블랙박스로 분석이 되지 않았던 거시경제의 투자 부분에 희년 경제를 적용하여 이자보다는 이윤이 탁월하게 높은 안전한 투자구조를 많이 만들어 전체 거시경제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일어나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지출 보다는 투자에 의해서 총 수요가 충족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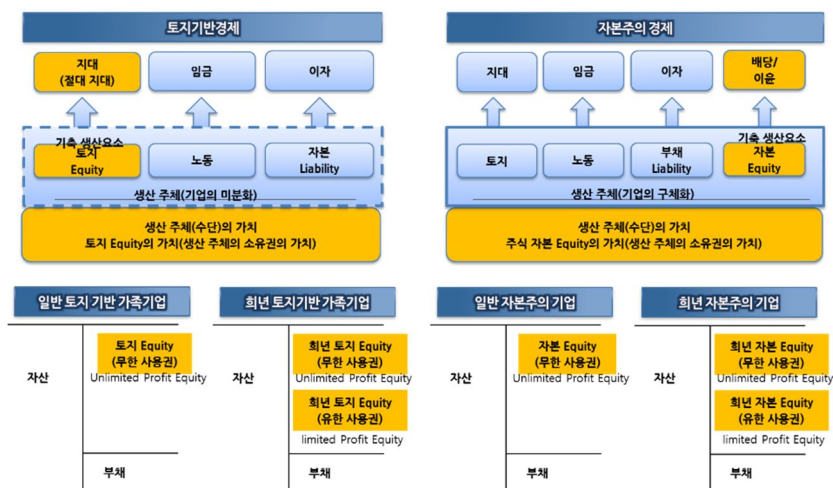


Figure 6 토지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기축생산요소

<Figure 6>에서와 같이 생산요소의 소유권이 생산 주체의 소유권인 생산요소를 기축생산요소(key factor of production)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토지 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두 적용되어 토지 기반 경제에서는 토지가 기축생산요소가 되고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본, 특별히 투입 자본이 기축생산요소가 된다. 토지 기반 경제에서 토지는 토지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노동과 자본의 힘을 합쳐서 소출을 내는 생산 요소 이면서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 노동, 자본이 합쳐서 생산을 하는 생산 주체에 대한 소유권이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은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요소로 생산주체에 투입되어 생산물을 내지만 투입 자본(Equity Capital)으로 형성된 주식회사의 지분이 생산주체의 소유권이 된다. 생산주체의 소유권으로 국가차원에서 토지시장이 형성되듯이 기업의 소유권인 주식지분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 자본의 소유권도 토지와 같이 생산주체의 소유권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자본은 생산 요소로서 생산에 투입되어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측면을 가지는 기축 생산요소가 된다. 그런데 토지 기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토지는 유한 한정적인 생산요소이지만 투입 자본은 생산주체의 가치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한다면 성장하는 만큼 계속 제한 없이 투입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김대영 & 심상달, 구약 희년 경제와 자본시장 민주화, 2015)

기축생산요소와 분배와의 관계는 생산주체의 1차적인 분배 후에 남은 이익을 취하는 생산요소이다. 그리고 생산주체의 가치는 기축생산요소가 가지는 현재 이익부터 미래의 모든 이익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합한 현재가치(Present Value)이다. 그러므로 토지 기반 경제에서는 토지가 기축생산요소이므로 토지는 전체 소출에서 노동에게 주는 임금과 자본에게 주는 이자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인 지대를 취한다. 그리고 생산주체의 가치는 토지의 지대의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이익의 현재가치(Present Value)이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남은 이익을 가지는 투입자본의 주식의 배당은 전체 소출에서 토지의 지대, 노동의 임금, 부채자본의 이자를 뺀 값이다. 그리고 생산주체의 가치는 기축생산요소인 투입자본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즉 현재 배당에서부터 미래의 모든 배당을 합한 가치이다. 이러한 기축생산요소는 전체 경제에서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경제시대의 희년 경제의 해법을 자본주의에도 응용하여 적용하여 자본주의 분배 문제와 지속가능성의 해법을 만들 수 있다. (김대영 & 심상달, 구약 희년 경제와 자본시장 민주화, 2015)

또한 주변국가의 일반 토지 기반 가족기업을 대차대조표로 표현해보면 토지 지분(Equity)은 무한이윤지분(Unlimited Profit Equity)이지만 희년토지제도의 토지지분은 무한이윤지분과 유한이윤지분(Limited Profit Equity)이 융합된 지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년토지제도의 Equity 개념을 오늘날의 주식회사에 적용하면 오늘날의 일반 주식회사와 자본시장이 무한이윤자본(Unlimited Profit Stock 혹은 Equity) 개념만 있는 상태에서 무한이윤자본(Unlimited Profit Stock 혹은 Equity)과 유한이윤자본(Limited Profit Stock 혹은 Equity)이 융합된 상태가 된다.

2). 희년토지제도의 소유권 구조와 유한 토지 사용권 내부거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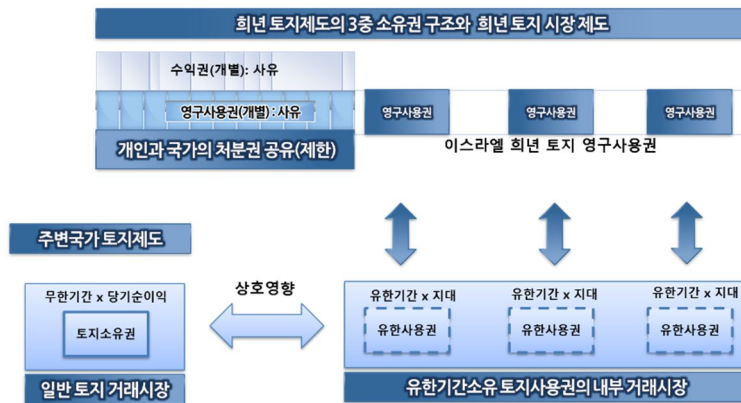


Figure 7 희년토지제도의 3중 소유권 구조와 내부토지시장

희년토지는 수익권과 영구사용권이 사유로 모든 성인 남성들에게 주어졌으며 처분권을 개인과 국가가 공유하여 처분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한기간 토지 사용권이 유통되며 내부거래시장을 이루고 그 거래시장에서 토지 사용권 가격은 주변국가의 토지가격, 무한기간 토지가격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진다.

3). 열린 내부토지시장, 평등 포지티브 섬 구조

“사용권을 빌려주는 사람은 소출에 근거한 지대와 빌려주는 기간을 곱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투자 개념과 비슷하다. 그리고 빌려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토지를 돌려받게 되고 상승되거나 하락된 토지가치를 소유하게 된다.” (김대영, 희년 경제제도의 개념과 적용 2, 2015)

희년 토지기반 경제를 경제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유한기간 토지사용권 거래시장을 기반으로 투자가 중심이 된 경제이다. 그리고 오늘날로 해석하면 열린내부자본시장과 열린내부시장 (김대영, 심상달, 장원석,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2014) 기반의 투자 중심 경제이다. 열린 내부 토지시장 기반의 희년 토지기반 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토지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개인의 힘으로 복지를 이룰 수 있었다. 희년 경제에서 복지가 필요하면 자신의 토지사용권을 스스로 팔아서 해결할 수 있어 자발적인 복지가 가능했다. 둘째 누구나 지속 가능하게 토지를 소유하고 자발적으로 토지사용권 거래시장으로 토지 사용권을 팔고 살 수 있었다. 그리고 토지사용권을 사고 팔 때 서로가 투자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포지티브 섬 구조의 장점을 누릴 수 있었다.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토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또한 편으로는 토지를 빌리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빌려서 가치를 올리고 그 올린 가치를 빌린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가지지만 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올라간 가치가 토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빌리는 사람이 투자를 받는 의미를 가지고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 의미를 가진다. 토지가치를 올리면 양쪽 모두 함께 이익을 얻게 되는 양쪽 모두 평등한 포지티브 섬 구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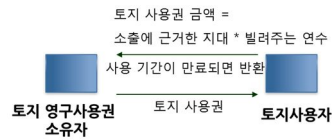


Figure 8 유한기간토지사용권 거래의 가격

셋째 토지 처분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50년 주기의 토지사용권 거래시장으로 유한 한정적인 이익이 추구되는 토지 사용권 거래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경제이다. 그리고 50년주기로 실질가치와 시장가치가 한계를 가지고 커지다가 줄어드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룰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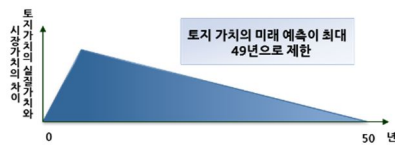


Figure 9 50년 주기내의 최대 실질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

4). 희년 토지기반 경제의 3가지 영역과 현대 주식회사와 자본시장 적용

희년 토지기반 경제는 그림<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에서와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기축생산요소인 토지의 처분권 제한과 관련된 영구사용권을 가진 개별기업의 배타적 사유의 영역이다. 둘째 부분은 유한기간 주기를 가진 토지사용권의 유통에 의해 형성되는 열린 내부 토지시장의 배타적 사유가 융합된 영역이다. 이때 형성되는 토지거래는 일반적인 무한 기간의 지대의 합을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Present Value)인 토지가격 대신에 유한기간의 지대의 현재가치(Present Value)인 토지가격으로 거래된다. 셋째 부분은 이스라엘은 주변국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 형성되는 토지 시장의 영역이다.

이와 같이 토지기반경제의 기축생산요소에서 적용했던 희년 경제의 개념을 자본주의의 기축생산요소에 적용하여 희년경제의 개념을 자본주의에 실현할 수 있다. 오늘날의 자본시장에서 토지기반경제의 기축생산요소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수단인 기업의 지분이며 특히 기업 중에서도 자본시장의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지분이다. 그러므로 토지기반 경제의 3가지 영역은 오늘날의 주식회사 주식지분과 자본시장에서 다음의 3가지 영역으로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영역은 기축생산요소인 생산수단의 소유권인 주식지분의 처분권 제한과 관련된 개별기업 영역이다. 이를 위해 경제 참여자들인 개인, 기업, 정부가 상법상 합자조합(파트너십)을 결성하고 파트너십에서 주식회사 조직을 설립하여 파트너십의 지분 처분과 파트너십에서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지분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상법상 합자조합(파트너십)을 활용하는 이유는 파트너십이 개별기업의 독자성이 유지되면서도 계약기반으로 처분권을 제한하면서 하나가 지속적으로 되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영역은 토지기반 경제에서 희년 경제가 열린내부토지시장을 가지는 것처럼 자본주의 자본시장안에서 파트너쉽이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상장되거나 자본투자를 받을 때 파트너쉽 주식회사 안에 열린내부자본시장 기반의 열린내부시장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에서 주식회사의 지분을 전체적으로 소유하며 유한 기간 주기적으로 실적에 기반하여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조합지분이 필요하고 조합지분의 비율대로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지분 내부에 열린 내부 자본시장과 그것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내부시장이 생긴다.

셋째 영역은 토지기반 경제에서 희년 경제에서 주변국과 인접된 토지 시장을 형성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조합형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을 때 외부의 투자자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나아가서는 외부기업들과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가지 영역의 조합형 주식회사가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SHC(Servant Holding Compan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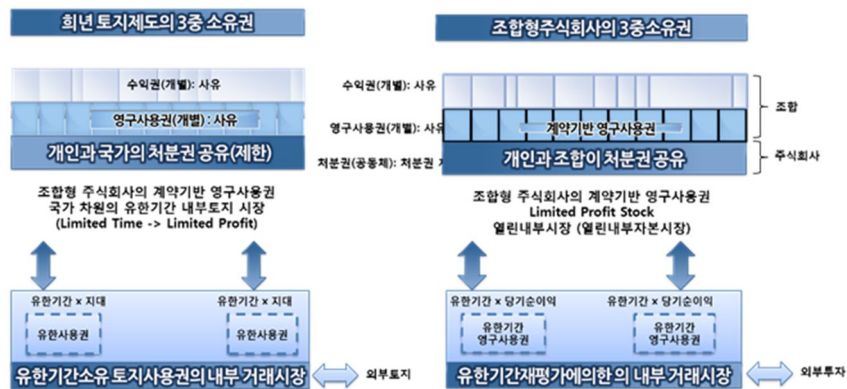


Figure 10 희년 토지제도의 내부시장과 조합형 주식회사의 내부시장

5). SHC(Servant Holding Company), 열린공유서비스, 열린 내부자본시장, 평등 포지티브 섬 구조

구약의 희년 경제는 국가차원의 경제구조이다. 이것을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적용할 때 첫째 개인과 기업들의 연합의 차원에 적용할 수 있고 둘째 국가차원의 민관협력 모델로 국가차원으로 적용하고 셋째 글로벌 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3가지 차원 모두, 개인,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참여자들이 파트너쉽(조합)으로 참여하여 주식회사 기업을 만드는 조합형 주식회사의 기업의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희년 토지기반 경제를 오늘날 자본주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확장성을 활용해야 한다. 유한 한정적인 토지와 달리 자본은 자본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그 가치들의 합을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인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가진 자본을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개별적인 경제참여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본을 출자하는 방법과 장기적인 서비스 수수료를 약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본을 만들 때 그 자본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자본은 지속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자본의 확장성을 활용하면 기존의 제로섬 경제구조를 극복하는 포지티브섬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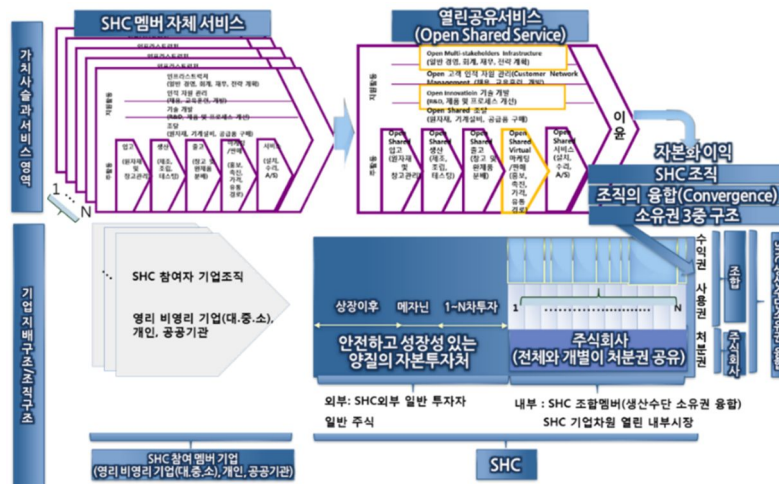


Figure 11 SHC와 열린공유서비스, 열린내부자본시장

IV. 서비스 경제의 트라이레마를 해결하는 SIB와 SHC

1. 서비스 경제의 트라이레마

자본주의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일자리 문제이다. 발생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조업이 자동화되면서 필요 없어진 일자리가 서비스업종으로 옮겨가게 되었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충분한 양질의 고용을 만들지 못했다. 또한 선진국들은 임금이 낮은 후발 국가들로 제조업이 옮겨지게 되면서 양질의 고용을 만들어 내지 못해 선순환구조가 깨지게 되었다. 그래서 고용이 되지 않아 세수가 줄어 들고 복지 대상은 늘어나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구 선진국들은 국가별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고용 안정성 목표, 소득 형평성 목표, 건전한 정부재정 목표들을 모두 달성하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3가지 목표 중의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서비스경제의 트라이레마에 도달하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민간 사회적기업의 효율과 임팩트 투자의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Figure 12>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공공서비스를 효율화 하고 민간의 재원을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영역에 투입하여 정부 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득형평성과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목표이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회적기업들의 한계로 개별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효율이 일어나지만 국가전체적으로는 중복투자가 일어나고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할 민간투자를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체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의 한계와 영리영역의 양극화 심화로 정부재정의 필요성이 더해가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와 복지의 트라이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효율과 투자가 포지티브 섬 구조로 연결되는 경제구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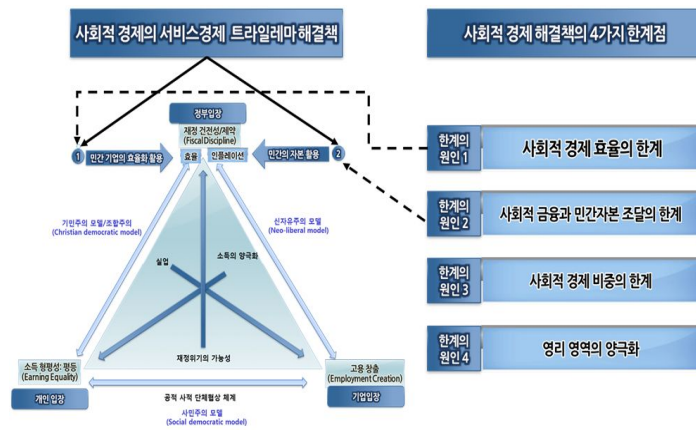


Figure 12 사회적경제의 서비스경제 트라이레마 해결의 한계

2. 개별 SIB적용의 한계

현재와 같은 개별 SIB는 서비스경제의 트라이레마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별 SIB 프로젝트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복투자가 일어나 효율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분한 민간차원에서의 투자가 일어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SIB의 투자영역이 예방영역의 선제적 투자이기 때문에 전체 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별 SIB를 많이 적용한다 하더라도 중복투자가 일어난다면 정부가 후불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자선 자금등을 더 많이 사용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하는 대상이 혜택을 덜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별 SIB는 서비스경제의 트라이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

3. 포지티브 섬 희년 경제구조 SIB/SHC 적용

서비스경제의 트라이레마 구조는 <Figure 13>에서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트라이레마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사회서비스의 품질, 사회서비스의 양이 사회서비스의 트라이레마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트라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국가차원에서의 효율성과 민간자본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SIB를 국가 차원의 공유서비스, 복지 공유서비스등에 적용하여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데 사용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대기업의 CSR/CSV 자금의 10%를 사용하고 효율화된 결과가 나타날 때 후불로 정부가 인센티브와 함께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은 다시 CSV/CSR 자금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만든다면 실제로 국가차원의 효율화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면서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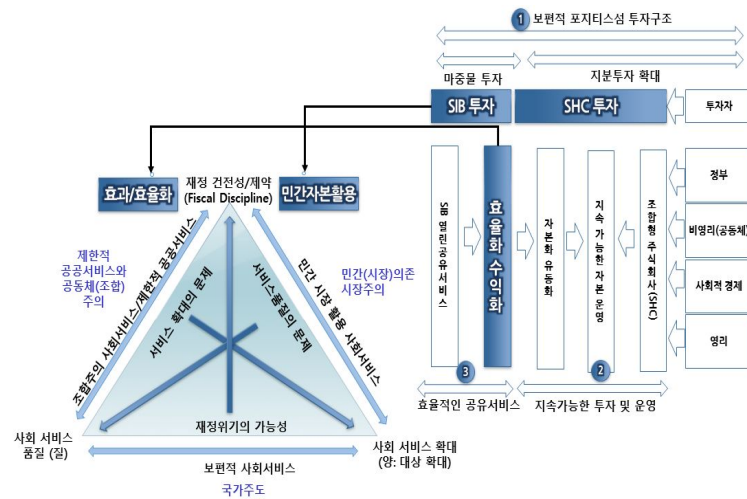


Figure 13 사회서비스 트라일레마의 SIB/SHC 해법

또한 <Figure 14 공공서비스와 SIB를 지원하는 SHC>와 같이 SIB투자가 공유서비스의 마중물이 되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다시 열린공유서비스와 SHC구조를 통해 열린내부자본시장을 이루며 자본화 한다면 민간의 투자를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평등한 포지티브 섬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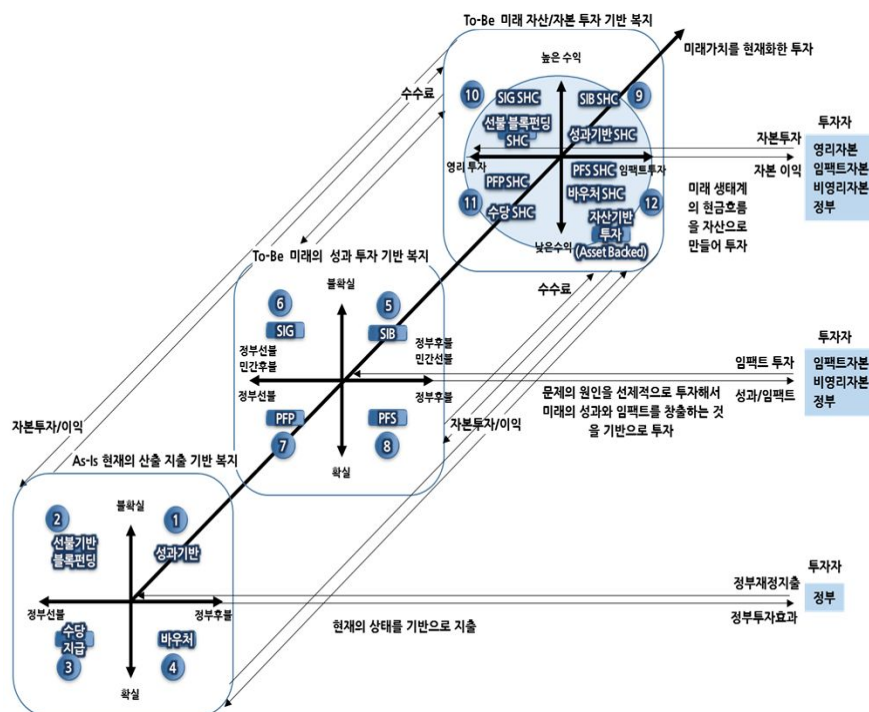


Figure 14 공공서비스와 SIB를 지원하는 SHC

V.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SIB와 SHC 적용

1. 합계출산율의 현황

한국은 합계 출산율 1.13 이 된 2006년이후에 1차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80주원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등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크하면 신생아 수당을 20살짜기 50만원 이상 지불할 필요가 있지만 보육 양육수당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이다.

(단위 천 명, %)

Table 1 합계출산율 현황⁶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생아 수	448.2	493.2	465.9	444.8	470.2	471.3	484.6	436.6	435.4
합계 출산율	1.123	1.25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2. 민관협력 SIB와 SHC

1). SIB 구조와 SHC 구조

SIB는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양질의 신생아가 태어나도록 가족계획과 산모교육, 미혼모 교육, 저소득층 교육과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이 되도록 임팩트 지표, 성과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마중물을 넣는 역할을 한다. 각종 지표들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계층마다 보편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하여 국가와 국민이 행복한 출산이 되도록 성과지표와 임팩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SHC는 SIB를 통해 여성과 가정에게 지원되는 수당의 50% 이상을 자본화하여 신생아가 유발하는 산업과 함께 생산하는 산업, 소비하는 신생아 가정, 그것을 지원하는 정부가 융합된 열린내부시장 SHC를 만들고 외부의 금융자본이 투자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산업과 국민, 정부/지자체도 투자하도록 한다.

⁶ 출처: 통계청, 『2014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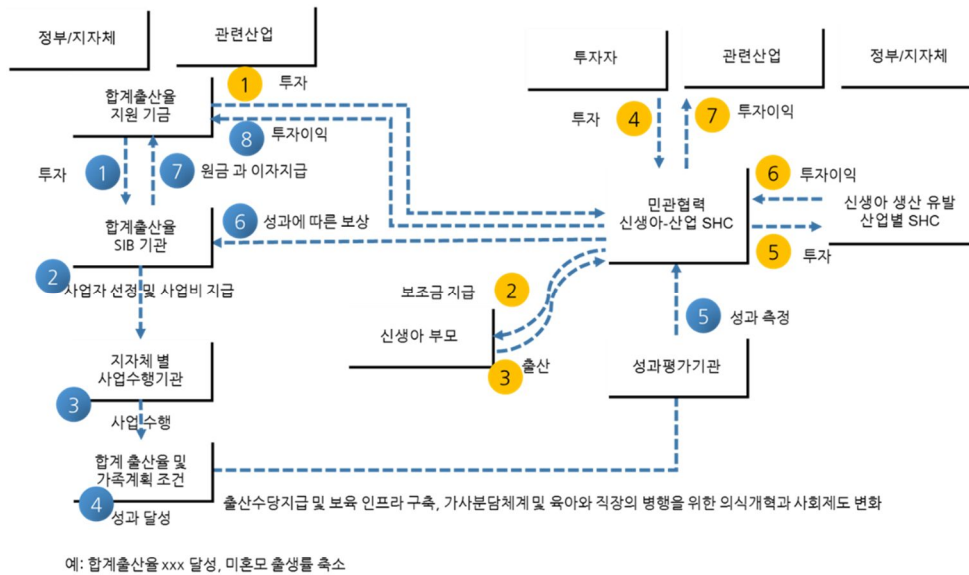


Figure 15 합계출산율 지원 SIB/SHC 구조

2). SHC 기업 지배구조와 SHC 투자모델

SIB 구조를 만들어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의 수도권이 신생아 산업자본과 임팩트 투자자와 함께 SIB 투자를 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신생아 소비자(신생아 부모)들이 소비 파트너십을 만든다. 그리고 신생아 파트너십과 SIB를 주도하는 민관협력 투자자들 파트너십을 합자조합으로 만들고 함께 SHC를 만들어 외부 자본투자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100%의 수당을 신생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그중의 50% 미만의 수당은 소비자들이 바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50%이상의 수당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SHC를 IT 플랫폼 구조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하여 대부분을 수익화하고 자본화 한다. 이러한 SHC를 지방 지자체를 손자 지주회사구조로 7년단위의 지주회사를 50년 단위의 지주회사의 아들 지주회사로 SHC 지주회사 구조로 만들어 SHC에 투자를 받는 기업지배구조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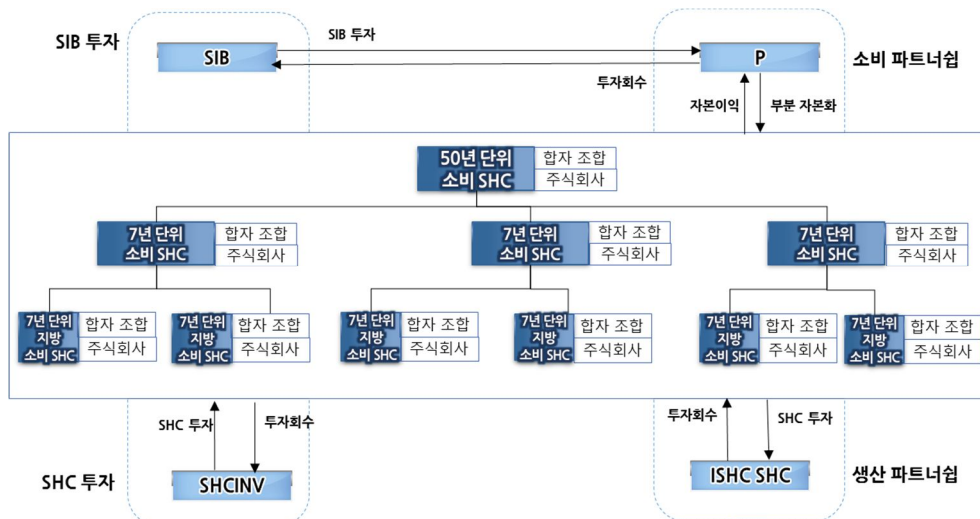


Figure 16 7년 단위 소비 SHC/지방 중앙정부 SHC 지주회사 구조

그것의 자본투자와 회수 모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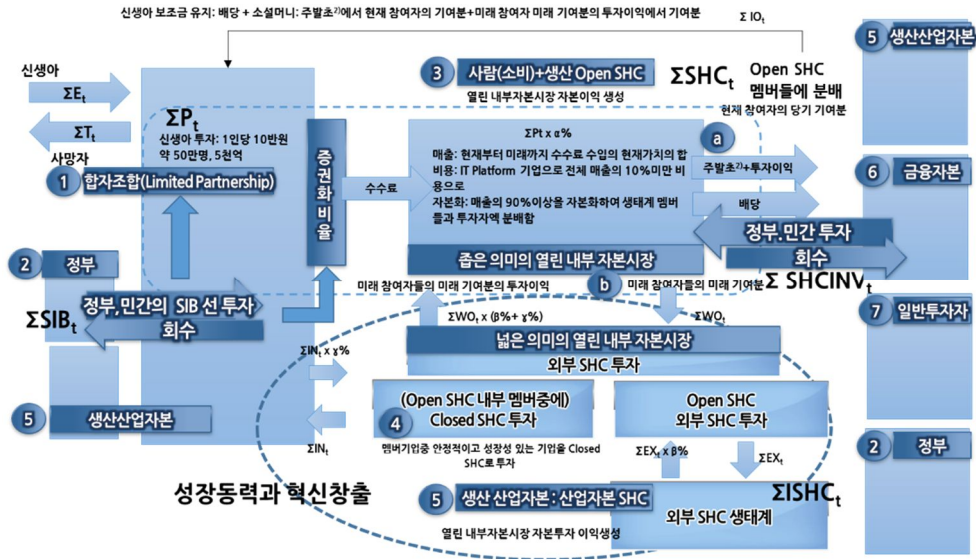


Figure 17 SHC 자본투자 모델⁷

이때 SHC에 투자되는 SHCINV의 투자자금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가치라고 예상되는 투자금의 20%(IO)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소비 가정에 인센티브 형태로 지불한다. 이때 소비가정은 SHC배당과 함께 수수료로 지불하는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투자자금의 현재부터 미래가치(WO)라고 예상되는 투자금의 80%가량은 미래를 위해 축적되며 신생아 산업자본 ISHC에 투자되고 회수된다. 또한 50%이상의 수당을 자본화하는 소비와 생산 산업자본이 융합되는 SHC의 투자하는 투자자를 SHCINV, 소비하는 국민 P와 소비하는 국민과 정부/지자체 그리고 산업자본이 융합된 SHC, 그리고 산업자본 ISHC의 거시적인 항등식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sum SIB_t + \sum SHCINV_t = \sum P_t + \sum SHC_t + \sum ISHC_t$$

3). 투자 금액, 자본가치(시가총액)

<Table 2>는 신생아 1인당 매달 100만의 수당을 50%로 자본화할 때의 시뮬레이션결과이다. SHC 투자를 받고 시가총액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주식가치의 성장과 투자에 의해 회수 받게 된다. 투자자들의 평균 IRR 20% 이상으로 7년 안에 투자 회수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7년이 7번 49년되는 기간동안의 SHC가 운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2 49년 동안의 SHC 자본투자 및 자본가치

⁷ (김대영, 심상달, 장원석,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2014)

	1차							2차							3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매년 신생아투자금 P ₁	4.35	8.79	13.32	17.94	22.65	27.46	32.36	37.36	42.46	47.66	52.97	58.38	63.90	69.53	75.28	81.14	87.11	93.21	99.42	105.77	112.23
실제 정부투자금 SIB ₁	4.35	6.12	9.82	12.84	16.00	19.31	22.74	26.32	30.11	22.99	25.94	29.05	32.22	35.47	38.78	31.11	34.20	37.33	40.80	44.32	47.87
실제 민간투자금 SHINV ₁	6.08	10.62	16.32	22.36	28.77	35.62	42.96	45.05	52.92	60.48	68.63	77.22	86.51	96.64	86.65	97.54	106.52	116.21	126.74	138.31	151.20
투자받는 시가총액	17.64	18.52	28.70	39.75	51.89	65.37	80.52	96.91	110.04	124.10	138.83	154.80	172.30	191.63	215.67	230.66	246.48	263.29	281.47	301.30	323.15
누적 미래가치 WOT	0.12	0.29	0.52	0.87	1.37	2.06	3.00	2.93	3.76	4.64	5.89	7.44	9.36	11.74	10.97	12.92	15.16	17.79	20.89	24.57	28.94
지주사 시가총액	0.74	1.50	2.47	3.88	5.95	8.94	13.18	18.25	22.17	27.13	33.21	40.75	50.02	61.40	89.58	101.79	115.44	130.73	148.25	168.37	191.48
자회사 시가총액	34.54	35.54	54.94	75.63	97.83	121.79	147.86	178.86	205.61	234.42	264.91	298.20	334.88	375.73	413.18	448.16	486.16	527.80	573.88	625.45	683.85

	4차							5차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매년신생아투자금	114.48	116.77	119.10	121.49	123.92	126.39	128.92	131.50	134.13	136.81	139.55	142.34	145.19	148.09
실제정부투자금	47.09	26.04	27.06	28.06	29.05	30.02	30.95	31.84	60.32	62.23	64.08	65.88	67.61	69.28
실제민간투자금	122.13	130.44	134.38	138.74	143.67	149.34	156.02	118.56	127.14	133.58	141.68	152.01	165.30	182.50
투자받는시가총액	344.84	352.51	360.66	369.39	378.85	389.18	400.59	416.71	422.55	429.12	436.54	444.91	454.36	465.00
누적미래가치	27.44	30.99	34.97	39.45	44.53	50.32	56.94	59.52	66.27	73.96	82.75	92.86	104.54	118.11
지주사 시가총액	244.05	269.94	298.36	329.65	364.19	402.40	444.78	522.43	566.72	615.49	669.13	728.05	792.72	863.63
자회사 시가총액	717.54	743.38	771.96	803.93	840.12	881.60	929.76	968.07	1,012.80	1,065.66	1,128.89	1,205.40	1,298.95	1,41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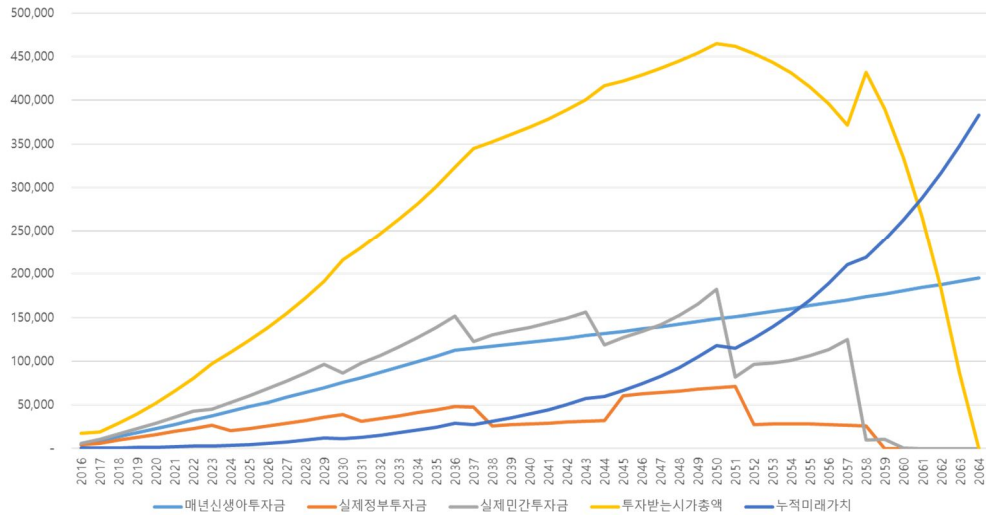
	6차						7차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매년신생아투자금	151.05	154.07	157.16	160.30	163.50	166.77	170.11	173.51	176.98	180.52	184.13	187.82	191.57	195.40
실제정부투자금	70.88	27.64	27.88	27.94	27.81	27.47	26.91	26.13	-	-	-	-	-	-
실제민간투자금	81.72	96.14	98.02	101.17	106.10	113.54	124.44	9.42	10.54	0.77	-	-	-	-
투자받는시가총액	461.75	453.81	443.77	431.16	415.42	395.90	371.83	432.17	390.12	333.81	265.84	184.08	86.10	-
누적미래가치	115.03	126.53	139.41	153.90	170.28	188.90	210.20	218.82	239.49	262.36	287.75	316.02	347.61	383.06
지주사 시가총액	1,022.43	1,104.93	1,194.91	1,293.18	1,400.60	1,518.15	1,646.86	1,880.52	2,086.03	2,256.94	2,443.02	2,645.66	2,866.31	3,106.54
자회사 시가총액	1,397.67	1,455.34	1,519.63	1,591.29	1,671.19	1,760.24	1,859.52	2,864.55	3,056.49	3,270.46	3,508.98	3,774.87	4,071.27	4,401.69

4). 줄어드는 외부투자 금과 늘어나는 누적 미래가치의 리셋

투자금의 현재부터 미래가치(WO)는 결과를 보고 투자금을 인센티브로 분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금액을 활용, 재투자가 일어나도록 하여 외부투자가 줄어들어, 외부 SIB투자, 민간투자, 정부투자가 줄어든다. 그리고 누적 미래가치는 49년이 지나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지고 1년동안 안식년을 가지고 50년째 다시 시작되도록 하여 누적 미래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지 않고 주기를 가지고 리셋 되도록 한다. 이것은 희년 토지제도가 50년 단위로 회복적 구조를 가지는 것과 유사한 의미의 구조이다.

Table 3 줄어드는 실제외부투자금과 늘어나는 누적미래가치의 리셋

매년 신생아투자금 vs 실제민간투자 vs 실제 정부투자 vs 누적 미래가치,



5). 예상 합계출산율의 증가

직접수당, 자본인센티브등 매달 1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될 때 합계 출산이 다음과 같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정체 혹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SHC 자본투자모델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매년 누적되어 20년까지 누적되는 매출과 이익이 누적 상승되는 투자모델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Table 4 합계출산율의 예상 증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상인구	49,182,000	49,410,000	49,779,000	50,004,000	50,220,000	50,424,000	50,617,000	50,801,000	50,977,000	51,141,000	51,294,000	51,435,000	51,565,000	51,686,000
인구증가율(%)	0.48	0.46	0.75	0.45	0.43	0.41	0.38	0.36	0.34	0.32	0.30	0.28	0.25	0.23
신규예산 인구						50,424,000	50,617,000	50,809,283	51,002,497	51,196,346	51,390,931	51,586,255	51,782,322	51,979,134
신규예산인구증가율						0.41	0.38	0.36	0.34	0.32	0.30	0.28	0.25	0.23
출생아수	197,907	214,766	215,869	217,329	170,198	167,743	165,000	166,260	169,585	172,977	175,955	183,564	187,236	187,236
출생아수(명)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700	447,474	456,423.48	465,551.9496	474,862.9886	484,960.2484	494,047.4533	503,928.4024
출생아수(명)	9	9.4	9.4	9.6	8.6	8.6	8.7	8.8	9.0	9.1	9.3	9.4	9.6	9.7
합계출산율 (인구1명당 명)						1.205	1.21	1.23	1.25	1.27	1.30	1.32	1.34	1.36
합계출산율 (가정여성1명당 명)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1	1.23	1.25	1.27	1.30	1.32	1.34	1.36
사망자수(명)	246,942	255,405	257,396	267,221	266,257	267,692	275,700	269,245.3	270,178.1	271,047.3	271,858.2	272,605.5	273,299.8	273,935.8
사망자수(명)	5	5.1	5.1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자연증가율 (인구1명당 명)														

6). 거시경제구조

기존의 주식투자 시장은 소수의 뛰어난 기업만 투자를 받아 자본시장이 모든 기업과 국민 전체를 위해 활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희년경제 포지티브 심구조를 이루는 SHC를 국민, 정부, 기업에 적용하면 SHC 분산적 융합투자라는 안전한 투자 구조를 만들어내며 전체 거시경제를 활성화시켜 정부재정(G)대신에 투자(I)를 활성화시켜 총유효수효를 만들어 거시경제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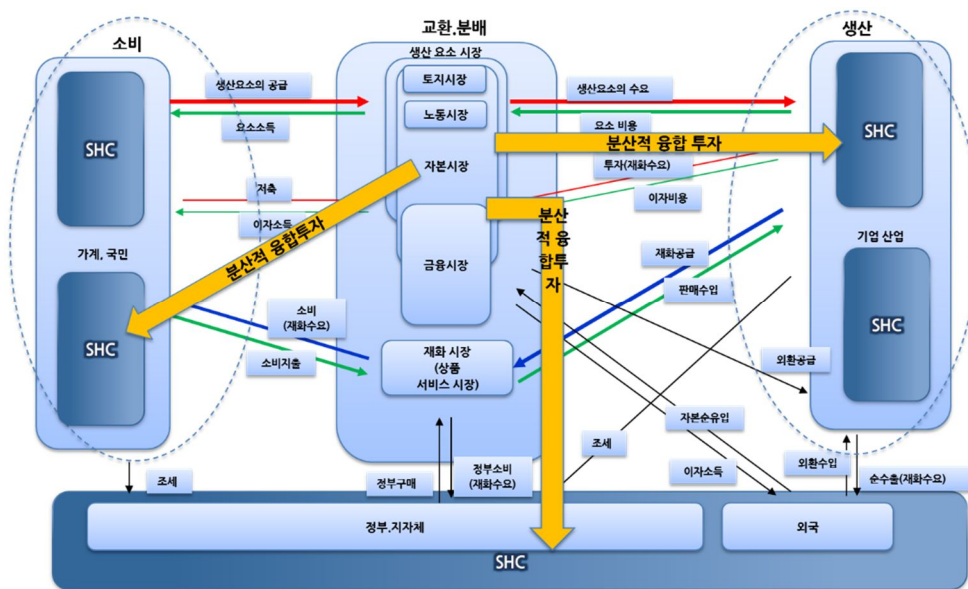


Figure 18 SHC기반 거시경제구조

7). 자본시장 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정치 민주화가 소수만이 정치에 참여 수 있었던 정치적 권리를 모두가 가지도록 하는 정치 권리의 확대 개념인 것처럼, 경제 민주화도 경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권리와 권한의 확대 개념이어야 한다. 기존의 경제민주화는 제로섬 경제구조에서 기득권의 권한을 빼앗는 개념이었다면 희년 경제의 포지티브섬구조와 투자구조로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권한 확대의 개념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ure 19 포지티브 섬 자본시장민주화와 경제민주화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SIB가 포지티브 섬 경제구조를 제공하지만 계약기반의 부채 구조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회년경제의 포지티브 섬 구조와 그것을 주식회사와 자본시장에 적용한 SHC 구조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SIB와 SHC가 함께 사용되어 서비스 경제 트레일라마를 해결하는 포지티브 섬 구조를 만들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SIB와 SHC를 함께 적용하여 1인당 백만원이상의 수당을 받으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누려야할 경제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하여 소비와 산업과 정부가 분리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만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은 포지티브 섬 회년 경제구조를 가짐으로 정부재정대신 투자를 받아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룰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SIB/SHC기반 포지티브 섬 융합경제구조가 자본시장 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와 논문을 시작으로 구약 회년 경제에 대한 경제구조적인 연구가 좀더 진행되고, SHC기반 융합경제를 통해 자본시장 민주화와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루기 위한 더 많은 관련 연구와 실물경제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Hock, D. (2000). "Birth of the Chaordic Age" . Berrett-Koehler Publishers.
- Tomkinson, R. (2007). *Shared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Ashgate.
- 김대영. (2012). “융합경제 3.0 그리고 자본주의 7.0.” 퍼플.
- 김대영. (2015년 8월 28일). 회년 경제제도의 개념과 적용 2. “CMR(Christian Management Review) 14호” .
- 김대영, & 심상달. (2015). 구약 회년 경제와 자본시장 민주화. “기독교문학회(통권 32호)” .
- 김대영, 심상달, & 장원석. (2014).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금융연구원.
- 김병하. (2003). 성경적 회년 규례 요소와 회년 주기. “개혁 신학” , 39-50.
- 김병하. (2005). “회년사상의 영성화.” 기독교서회.
- 이우관. (1999). “그룹기업의 투자 및 고용행태와 내부자본시장.” 한성대학교.
- 이종근. (2008년 6월 30일). 수메르 우르-이남기나 법과 히브리 법의 사회정의 고찰. “구약논단 제 14권 2호(통권 28집)” .
- 정승일. (2005). “기술혁신 친화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의 한국적 형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홍훈. (2010). “경제학의역사.” (주)박영사.